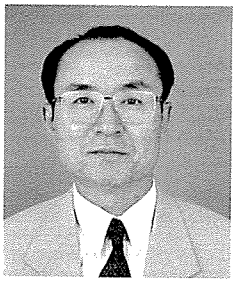
법조인이 보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삶의 빛과 그림자



吳 允 德
〈변호사〉

분야가 다른 제3자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계는 어떠한가.
과학분야가 아닌 타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학기술의 현황과
과학기술계에 바라는
진솔한 제언을 싣는다.

「삼풍」은 왜 주저앉았는가

삼풍백화점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려 앉았다. 성수대교가 동강나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이 터져 나갔었다. 그러더니 삼풍이 주저 앉은 것이다. 참으로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의 주위에는 위험스런 요인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나와 가족과 이웃이 충분히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지근(至近) 거리의 사고였기에 더욱 그랬던 것이 사실이다.

삼풍붕괴 후 친지며 피해자들의 이런저런 슬픈 사연들을 들으며 사고 후 거의 한 달이 다 되었건만 노상 마음이 슬프고 불편하다. 편집자가 『법조인이 보는 과학기술』에 관하여 글을 쓰라는데 삼풍사고 얘기를 꺼내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안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삼풍얘기 말고 이 시점에서 달리 다른 말을 적어 낼 기분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백화점은 무엇인가. 인류가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과 싸우며 이룩해 온 문명, 그 문명의 한 소비형태의 절정이 백화점인 셈이다. 특히 삼풍백화점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인가. 그 내용물의 진열이 화려할 뿐 아니라 건물 또한 외견상으로는 내외벽의 치장이 화려하기로 소문이 나있던 서초동 언덕의 한 명소였다. 그런데 그 내노라던 백화점이 대낮에 무너져 앉아 7월28일 현재 사망 4백58명, 부상 3백18명, 실종 1백명, 신원미확인 시체 40구, 부상 9백33명(대책본부의 잠정집계)이란 단일 사고로는 6.25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참화를 빚어냈던 것이다. 삼풍의 참화를 생각하면 의당 관계 기업인, 건축설계자, 건설업자, 감리관계자, 공무원의 위법, 부도덕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법조인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갖는 감정일 것이다.

탐욕에 짓밟힌 과학기술

그리고 삼풍건설 관계자들을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히 다스려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유족들 앞에 나타난 이홍구총리를 봉변주어 면박하고,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옷 벗겨서 두들겨 패면 이 비극은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 것인가. 대답은 간단치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삼풍관계자들은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자와 같은 시대를, 한 하늘 아래서 함께 살아온 우리의 이웃사람들 바로 그들인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공영의 문명에 녹아 있는 과학기술을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맞추어 십분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인 때문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생활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현대적 집적을 놓고도 그것이 과학기술인 사실조차 망각하기 일쑤이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은 이제는 우리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악마로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소스라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문명한 생활을 누려왔으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엄밀하게는 건축기술)의 수준은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꼴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질 않는다. 우리는 제2, 제3의 삼풍을 우리 주변 도처에 지뢰밭같이 깔아놓고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빨리빨리' '적당히'의 소산물

자연은 인류의 보금자리이면서도 때로는 지진, 폭염, 폭우, 태풍과 기근, 질병 등으로 인류를 괴롭혀왔다. 그리하여 인류는 자연과 맞싸워 이를 극복해 왔고 이 극복의 과정을 문명이라고 표현해 왔으며 그 문명의 유산을 공유하며 오늘날까지 번영을 거듭해 왔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면서 얻어낸 최대의 지혜였던 것처럼 보여졌고 이를 향유하지 않으면 현대를 살아 남을 수도 없게 되었다. 후진국들은 과학입국, 기술입국을 외쳐댔고 우리나라도 그리하여 60, 70년대를 뛰고 또 뛰면서 개발도상국으로 겨우 발돋움하게 되었다. 과정이야 어떻든 '빨리 빨리' '적당히' 그러면서 겉은 '번지르하게' 해 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변화와 발전이란 슬로건 아래 수 많은 편리와 안락의 성과들이 우리 눈 앞에 '한강의 기적'이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그 한강에서 우리는 출근길에 다리가 내려앉는 또 하나의 슬픈 '한강의 기적'을 체험하였다. 역시 우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가 외면한 인간의 섭리였던 셈이다.

인간은 누구인가. 아직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해결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주체인 것이다. 출생과 죽음의 신비를 모르는 존재인 것이며 생명과 우주에 관하여 이름붙일 세계관은 있으되 본질 자체를 욕망으로 더럽히지 않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생명체인 것이다. 발달을 거듭하는 과학기술이 제대로 쓰이면 인류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것이 인간욕망과 탐욕에 좌우될 때는 미처 의식도 못한 채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선과 악 양면을 위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사용목적에 관하여는 그것 자체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학기술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과 탐욕이란 내재적 악마에 이끌려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연을 오염시키면서 살상무기를 논할 것까지도 없이 백화점, 다리, 지하철 등의 평화적 모습을 하고서도 인류 멸망이란 궁극을 향해 치닫고 있음에 상도(想到)하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감히 자연을 정복하려던 인간은 정복당해 가는 자연과 함께 드디어 죽어가게 되었고 그것의 한 모습이 삼풍의 붕괴참상이라면 논리의 비약일까.

욕망절제만이 共存의 길

그러나 매스컴이 아무리 요란을 떨고 우리 모두가 치를 떨어도 이 파멸의 씨앗은 우리 자신이 만든 문명 내부에 잠재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과학자나 기술자, 행정관과 기업인 등 어느 특정계층의 책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 삼풍의 붕괴는 냉철하게 들여다 보면 욕망과 탐욕에 이끌린 과학기술의 발달이 안고 있는 비극을 극명하게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의 역기능이 졸속 부패행정의 맞불까지 타고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믄 삼풍붕괴 사고 따위의 모습으로 어처구니 없게 나타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욕망을 절제하여 참다운 인간의 가치에로 우리의 의식을 과감히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살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그러한 가혹한 생명의 공황에 직면할 것이다.

삼풍사고를 놓고 사고와는 거리가 먼 것만 같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끄집어 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첨단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모든 생활의 근간에 녹아 있는 고전적 과학기술도 발견 당시의 무색투명성과는 상관없이 파렴치한 욕망과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낸 작품은 수 없이 많고 훌륭했으나 제우스 신이 인류를 벌하려고 최초의 여인 판도라를 만들기로 했을 때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손을 빌렸고 코카사스 산에 프로메테우스를 묶은 쇠사슬도 그가 만든 것이었으며 그리고 기이하게도 최고의 미인 아프로디테는 그의 아내였던 것이다. 과학기술은 삶의 빛인 동시에 죽음의 그림자인 것이다.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가공할 문명 앞에서 욕망과 탐욕의 절제는 이제 먼 나라의 누구가 할 일이 아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사활의 문제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ST